

국민의당 내홍 여진…조선 10명 反安 합류

安, 당원 투표 거론 통합 몰이
정책연대협의체 구성 ‘가속’
반대와 이르면 오늘 집단성명
최고위선 親安 vs 反安 설전

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진영이 전당원 투
표 등을 거론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
라이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호남 지역구
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반대 진영도
본격적인 세 규합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당
내 갈등은 갈수록 확산할 전망이다.

27일 국민의당 박지원, 천정배, 정동영
의원이 조찬 회동을 갖고 바른정당과의 통
합에 반대하는 모임인 ‘평화개혁연대’의
출범을 논의한 데 이어 당내 조선의원 10
여 명도 이날 저녁 회동을 갖고 통합 반대
에 대한 입장을 모은다.

지금까지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
제기됐던 반(反) 통합 목소리가 조선의원 그
룹으로 변진 것으로, 평화개혁연대 출범 등
당내 통합 반대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 반
(反)안(반 안철수)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.

국민의당 조선의원 10여명은 이날 여의
도에서 회동을 갖고 안 대표의 ‘통합드라
이브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. 광주
의 모 조선 의원은 “결국 당내 분란의 정점
인 통합 문제가 논의될 것”이라며 “안 대
표의 무리한 통합 드라이브에 조선 의원들
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
될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앞서 박지원, 천정배, 정동영 의원
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만나 이번 주 내에
평화개혁연대 출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.
천정배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“평
화개혁연대를 이번 주 내에 출범시키는 등



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2차당위원회 최고운영위원회회의에 참석해 김태일 제2차당위 공
동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.

최대한 빠르게 구성하기로 했다”며 “현역
의원들이 초반에 20명 넘게 참여하는 등
공급적으로 당내 의원들 대부분이 함께할
것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 당내 일각에서는
통합 반대 의원들이 이르면 28일 집단 성
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.

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3주 연
속 최저점을 찍은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
원내대표의 ‘3당 통합론’ 발언까지 나오면
서 안철수 대표 진영의 입지는 점차 좁아
지는 형국이다.

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정우택
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“장기적으론 한

국당, 국민의당, 바른정당 3당 통합으로
가야할 지 모른다”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
에 대해 “꿈도 꾸지마라”고 반박했다.

또 친안계로 분류되는 이태우 최고위원
과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유승민 바른정
당 대표에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
중단할 것을 촉구했다. 이는 통합의 명분
쌓기로 보이지만 과연 바른정당이 명확한
입장을 밝힐 것인지는 미지수다.

안 대표 진영은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
를 계기로 통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
다. 국민의당은 이날 바른정당과 정책 공
조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이른바 ‘정책

연대협의체’ 구성과 관련, 양당에서 2명씩
참여하는 ‘2+2’ 형태로 운용하자는 수정
안을 제시했다.

통합론을 둘러싼 당내 여진은 계속되고
있다. 이날 최고위에서는 친안과 반안 성
향의 최고위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.
당내 분란이 고조되면서 당기윤리심판원
은 안철수 대표와 이상돈 의원을 상대로
각각 제기된 징계요청안을 각하 또는 기각
처리했다.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통합론
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당내 갈등
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한국당, 국정원·검찰 특활비 특검법 발의

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도 포함

자유한국당이 27일 국가정보원 및 검
찰의 특수활동비(특활비) 부정 유용 의
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
법안을 발의했다.

이날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박근혜
정부 당시 국정원 부분도 포함된 것
으로 알려졌다. 이는 “현재 검찰이 수사
를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
은 제외한다”는 홍준표 대표의 앞선 발
언과는 다른 부분이다.

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
최고위원회를 열고 국정원, 검찰, 경찰
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활비 불법사용
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제출을

의결했다. 이후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
교일 의원은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
제출했다.

한편,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서울
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
고 올해로 폐지된 사법시험(사시)의 부
활과 대학입시 정시모집 확대 등을 골자
로 한 교육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.

혁신위는 또 대입에서 수능 반영 비
율이 높은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반면
학생부교과·학생부종합·논술·자기소
개서 등 외적 요소 반영 비율이 높은 수
시모집은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문대통령 연차 내고 정국 구상

대국민 휴가 독려…리얼미터 지지율 73% 한달째 상승

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하루 연차를 내
고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. 이
에 따라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이 주재
하는 수석·보좌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
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,
동남아 순방 등 잇따른 외교 일정과 내
각 인선을 마무리 한 뒤 가진 짧은 휴식
이다. 하지만, 내년 예산안 처리, 한중
정상회담, 정부수석 및 감사원장 인선
등 중요 현안이 목전이어서 휴식 중에도
정국 구상에 몰두했을 것으로 보인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소진하면서
7일의 연가를 남겨뒀다. 문 대통령은 지
난 6월 한·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
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휴
가 사용 장려를 위해 “올해 연차(연가)
를 다 사용할 계획”이라고 했었다.

한편,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
20~24일 전국 유권자 2521명(응답률
5.7% 표본오차 95% 신뢰수준에 ±2.
0%포인트)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
율을 조사한 결과 전 주 대비 1.4%포인트
오른 73% 지지율을 기록했다. 같은
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
정적 응답은 2.8%포인트 하락한 21.4%
로 집계됐다.

/임동욱기자 tuim@

종교활동비 비과세…소득만 세무조사

기재부 세법 개정안

종교인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
에 따라 결정된 기준으로 받는 종교활
동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. 종교인
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
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
규정이 만들어진다.

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
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
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
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.
정부는 일단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
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화했다. 소득이 아
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
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.

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
결·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
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
것이다. 개신교의 목회활동비, 천주교
성무활동비,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가

이에 해당한다.

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
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
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
다.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
도 이번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
하는 차원이다.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
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세무조
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
했다.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
분해 기록·관리,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
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.

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·조사권을 행
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
기 시정 기회도 주도록 했다. 정부는 시
행령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이 높
아지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담았다.
소득과 가정 구성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
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
것이다. 또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
부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.

/연합뉴스

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-4…기싸움만 ‘팽팽’

원내대표 담판 가능성도…정의장 “부수법안 지정하겠다”

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(12
월2일)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·자유한국당·국민의당은 27일
오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
여하는 ‘2+2+2’ 회의를 가동, 막바지 협상
에 돌입했다.

하지만, 공무원 증원, 최저임금, 아동수
당, 기초연금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가
협약하게 대답하고 있어 법정 처리시한을
지킬 수 있을지 난망한 상황이다.

이날 국회에서 열린 2+2+2 회의에는
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
근 원내수석부대표, 한국당에서는 김광림
정책위의장과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, 국

민의당에서는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
희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으며 첫
만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.

김태년 의장은 “이번 예산은 일자리를
중심으로 한 민생 예산이자 우리 안보를
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안보예산이고, 무엇
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
는 안전예산”이라며 “국민은 이번 예산이
법정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”
고 말했다.

이에 김광림 의장은 “가급적이면 12월2
일 법정시한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
다”면서도 “공무원을 증원하는 1조원 예
산, 최저임금 인상 3조원, 기초연금 1조

7000억원,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 심도
있게 논의하지 못했다”고 지적했다.

이용호 의장은 “2018년도 예산안은 성
장·혁신·미래가 없는 예산이라고 평가한
다”며 “공무원 증원예산과 최저임금 예산
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
린다”고 말했다.

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3
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여야는 신경
전을 벌였다.

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“서민주거안
정을 위한 주거급여예산, 아동수당 등 서
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
이 보류됐다. 국민의 여망과 요구가 반영
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잘 살펴주시길
바란다”며 협조를 요구했다.

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“현재
예산안 중 보류된 것이 25조원에 달하
는데, 삭감한 예산은 불과 5400억원이다. 과
연 이래 가지고 12월2일 통과될 수 있을지
의문스럽다”고 경고했다.

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“지금까
지 감액 합의한 것은 5400억 뿐이다. 예년
같으면 감액 규모가 5조원에 달했을텐데
이 모든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라고
생각한다”고 비판했다.

이처럼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‘2+2
+2’회의에서 접점을 찾기 못할 경우 여야
3당 원내대표가 담판을 짓는 상황이 벌어
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
한편,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“28일 오
전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”는 입장
을 내놨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2018학년도 **광신대학교**
학부/대학원 **신입생 모집**

사랑과 감사의 63년
1954 ~ 2017
믿음과 소망으로 100년

학 부

▶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
※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.

계열	모집단위	모집인원
인문	신 학 과	18
	국제한국어교원학과	1
사회	사회복지상담학과	2
	유아교육과	2
사범	음 악 학 과	5
	피아노, 성악, 관·현악[타악, 클래식기타 포함], 오르간, 작곡, 교회음악	
예능	실용음악학과	4
	드럼, 기타, 재즈피아노, 보컬, 베이스, 색소폰, 작곡, 미디[레코딩], 싱어송라이터 등	

※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(군종장교)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.
(합격시 학부 4년,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, 기숙사비 면제)
※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.
※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건강가정사, 평생교육사, 상담심리지도사,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.
※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(2급),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.

▶원서접수 및 전형일정

정시모집

• 원서접수 : 2017. 12. 30(토) ~ 2018. 1. 2(화)
• 전형일 : 2018. 1. 9(화)

광신대학교
KWANGSHIN UNIVERSITY

면목이 있는 대학 · 믿음을 주는 대학

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

입학문의 ▶ 학부 062) 605-1114 / 대학원 062) 605-1115

Passion [열정], Vision [꿈],
Truth [진리] 로 총명한
기독교명문대학
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!!

대 학 원

▶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/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

■ 특별전형

① 원서접수 : 2017. 11. 21(화) ~ 11. 29(수)
② 전 형 일

대 학 원	과정	모 집 학 과	모집인원	전 형 일 시
신학대학원	석사	신학과(M.Div.)	45	2017. 12. 1(금) 오후 2:30

■ 일반전형

① 원서접수 : 2017. 12. 1(금) ~ 12. 12(화)
② 전 형 일

대 학 원	과정	모 집 학 과	모집인원	전 형 일 시
신학대학원	석사	신학과(M.Div.)	20	2017. 12. 15(금) 오후 2:30
		신학과(Ph.D.)	6	2017. 12. 15(금) 오전 9:40
		목회학과(D.Min.)	2	2017. 12. 15(금) 오전 9:40
		유아교육학과(D.Ed.)	5	
		사회복지학과(D.S.W.)	5	
일반대학원	박사	상담심리치료학과(D.C.S.)	5	
		코칭심리학과(D.Psy.)	5	
		통합예술치료학과(D.C.S.)	15	
		통합예술치료학과(D.C.S.)	10	
		신학과(Th.M.)	25	2017. 12. 16(토) 오후 2:40
상담치료대학원	석사	상담심리치료학과(M.A.)	15	
		청소년상담지도학과(M.A.)	10	
사회복지대학원	석사	사회복지학과(M.S.W.)	20	
		평생교육학과(M.Ed.)	10	
국제대학원	석사	한국어교육학과(M.A.)	20	
		음악학과(M.A.)	6	
음악대학원	석사	실용음악학과(M.A.)	6	